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모델이 될 새만금산업단지

1991년 방조제 착공과 함께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 농업용지확보를 위해 진행되었던 사업이 새만금종합개발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방조제는 올해 말 완공된다고 하니, 그 광활한 모습을 살펴보고, 앞으로 진행될 사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군산 비응항을 찾았다.



비응항은 원래 비응도라는 섬이었지만, 새만금간척사업이 시작되면서 물과 연결되어 이제는 완전한 섬이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다. 지금은 비응항이 발전해 주변 섬들로 유람선을 운행하거나 수산시장, 수산경매시장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곳이다.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 초등학교 시절부터 들어온 것으로 기억된다. 그동안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떠들썩하다가 시간이 흐르며 관심 밖으로 멀어져 갔다. 그러다가 새만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더니, 올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위원회가 출범되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뚜렷해졌다.

다목적 용도의 새만금사업

○●●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에 총 길이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해 총 면적 40,100ha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991년 방조제의 착공이 시작되어 오랜 시간 조용히 진행되던 공사는 지난 2006년 4월 물막이 공사를 끝냈고, 3년이 지난 지금 여의도 면적의 100배가 넘는 육지가 생성되었으며, 올해 말 드디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아직은 도로포장 등의 보강공사 작업, 주변 녹지공간 조성이 한창이라 방조제를 달려볼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 갯벌이었을 이곳을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다. 애초 새만금간척사업은 식량자원 확보를 위해 새로 조성된 땅의 71.6%는 농지로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새만금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 변경안'을 확정해 ▶담수호를 제외한 내부토지 401km²(여의도의 140배)의 30.3%는 농업용지로 ▶경제자유구역(FEZ)·외국인직접투자(FDI)·관광·에너지·환경 등 비농업용지는 전체 39.2% ▶생태계 보전과 수질 확보를 위한 인공습지·저류지 등 환경용지는 10.6%에서 약 2배인 21.0% 등으로 확정했다. 즉, 새만금을 농지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환경, 산업, 관광 등 복합적인 개발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들어, 두바이나 베네치아, 암스테르담 등과 같이 매력 있는 명품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깨끗한 지구를 위해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단지

○●●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다고 해서 계획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후 2020년까지 내부 개발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미 착공에 들어간 개발단지도 있다. 특히 지난 5월 6일 착공식에 들어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2010년까지 1,194억 원이 투입돼 실증연구단지, 테마체험단지, 산업단지 등 건물 8개동을 포함한 356,000m² 규모로 조성된다고 한다. 신재생에너지단지에는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연구기관을 입주시키고, 최대 규모의 실증장비를 구축해 실증·성능평가 부분의 특화는 물론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산업화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 풍력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시아권 최대 규모의 풍력시험동,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연구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운영하는 태양광에너지 실증센터 등이 자리할 예정이며,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플라즈마를 이용한 대체 에너지 개발을 위해 새만금 전시관 인근 부지에 플라즈마 융·복합R&D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융합 에너지와 그에 파생되는 기술, 플라즈마 응용 연구 및 상용화 추진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안, 새만금방조제가 시작되는 이곳 비응도... 새만금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 모두가 옛 모습을 잃어가거나 이미 잃었다는 서운함도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발전해 가는 모습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지구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새만금의 미래는 지금보다 한층 더 밝을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며 발걸음을 돌렸다. **NFRI**

